

난민의 세기, 상상된 아시아*

— 이광수의 『서울』(1950)을 중심으로—

김혜인**

1. 서론: 냉전, 아시아, 그리고 1949년
2. 월경하는 뿔민족, 중국 난민의 등장
3. 중공군 스파이, ‘치안’=‘도덕’이란 전략
4. 환대받는 난민, 호출된 한국/아시아
5. 결론: ‘민족-국가’의 자기완결성, 혹은 서사적 균열

국문요약

이 글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후 한국에서 생산된 중국 난민 관련 기사 및 서사를 대상으로 난민에 대한 관리·통제·처리를 통해 한국이 탈식민 민족국가 및 자유주의 국가로 대내외적 정체성을 구축해나갔던 과정과 이를 서사화했을 때 나타난 균열 지점을 살펴보았다.

1948년 말부터 한국에 등장하기 시작한 중국 난민을 대한민국의 범망으로 소환하고 관리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이민족의 유입 및 중공군 스파이에 대한 국내 치안 유지라는 의미와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세계에서의 자유주의 국가 한국의 위상 재정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군정 철수와 신중국 수립이라는 두 개의 중대한 사건이 서로 교차하며 국가 정체성 강화가 요청되었을 때, 한국 내 중국 난민은 그 생사 보호와 관계없이 추방되거나, 스파이·밀무역상이라는 (잠재적) 범법자로서 남게 되는 양단의 길 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수는 미완의 장편소설 『서울』(1950)에서 중국 난민을 등장시

* 이 논문은 2010년 하반기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청년/청춘의 계보와 대중서사>(2010. 10. 23.)에서 발표한 「해방 이후, 아시아 지역 연대의 상상력 : 이광수의 『서울』(1950)을 통해 본, ‘아시아 지역주의’의 (불)가능성」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준 연세대학교 정재석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켜 한편으로는 이들을 스파이로 설정하여 국내 치안을 강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확대하며 한국의 보편성·우월성을 강조, 아시아 및 세계의 중심에 한국을 위치시키고자 했다. 이 두 층위 가운데 특히 후자를 강조했던 『서울』은 중국 난민을 한국계 혼혈아로 설정하여 불편하는 한국의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제시했다. 이는 1949년 10월 이후, 범법자로서(만) 한국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중국 난민을 ‘소속 없음’의 상태와 범의 그물망으로부터 뺄어내어 ‘민족’의 범주로 포섭시킨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은 이민족 배제 및 이념적 민족 생산을 통한 민족국가의 자기 완결성을 추구했던 당대 흐름 속에서 좌절된 채 미완에 그치고 만다. 『서울』의 연재 중단은 민족국가 단위의 세계에서 난민은 ‘이민족’이자 ‘비국민’이라는 층위에 서만 다른 국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며, 국가는 이들을 통제하고 배제하는 것을 통해 그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1949년이자 ‘난민의 세기’에 대한 기록 그 자체였던 것이다. (주제어: 아시아, 한국, 민족국가, 중국, 난민, 스파이, 이광수, 『서울』)

1. 서론 : 냉전, 아시아, 그리고 1949년

1945년 제국 일본의 패전과 동아시아 식민지의 해방, 그것은 제국/식민지 체제의 붕괴뿐만 아니라 제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주의 해체 및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구조 속에서의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주의 탄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생산된 아시아 상상에는 탈식민 민족국가 수립에의 열망이 냉전 구도로 재편되는 세계 질서의 층위로 재빠르게 수립되는 가운데¹⁾, 미국과의 관련성을 통해 자유주의 국가로서 국가 정체성이 강화되었던 지점이 각인되어 있다. 아시아는 제국/식민지의 불행한 경험이 담겨 있는 역사적 공간 혹은 약소민족들의 반제국주의 탈식민화 자립에의 열망이 결집된 신생(新生) 공간이자, 특히 제2차 세계대전

1)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옮김, 『아시아/일본-사이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 다』, 그린비, 2010, 196쪽.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미점령군이 조선총독부와 제휴하여 좌파 세력을 배제하고, 과거 식민지시기 때 활동했던 군인, 경찰, 관료 등을 통치 기구에 등용하며, 친미·반공 국가가 구축되었다. 미소 군정 체제, 좌우파의 대립, 38선 확정,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및 결렬, 남한 단독정부 수립, UN 총회에서의 한국 승인 등으로 이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은 한반도가 해방 이후 급변하는 동아시아 위상 재편의 실험실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과의 연대 속에서 반공주의를 주창하고 자유주의를 수호해야 할 정치적 공간으로 표상되었다.²⁾

한편, 1937년 중일전쟁 및 중국대륙으로의 전쟁 확대, 1941년 아시아 태평양전쟁 발발 및 남방 지역으로의 확전 과정에서 대두한 ‘대동아공영권론’은 표면적으로는 제국주의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동양의 다민족 네트워크를 표방했지만, 실상 제국/식민지로 위계화된 허구의 이데올로기였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일본 근대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여타 식민지 지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역사의 긴밀한 일부이기도 하다.³⁾ 주지하다시피 조선이 식민지 후반기 제국 일본의 한 지방(local)으로서, 혹은 한 지역(region)으로서 그 지정학적 위상이 재편되는 과정에는 제국 일본의 기획만이 아니라, ‘支那’, ‘滿洲’, ‘南方’ 등의 지역에 대해 일본이 생산해낸 지역 환상을 전유하며, 제국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조선(민족)의 위상을 확장하고자 했던 식민지 주체의 욕망 또한 담겨 있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생산된 아시아 상상에는 그러므로 과거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투영되었던 식민지 주체의 욕망에 대한 망각과 그 욕망이 냉전 체제하에서 민족의 한 일원으로서 신생 아시아를 호출하며 신흥 민족국가 건설에 합치되었던 변형의 궤적 또한 담겨 있다.

그렇기에 이 시기 한국에서 생산된 아시아 상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자유주의 진영 미국과의 직·간접적인 정치·경제적 관련성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타 지역과 새롭게 구축되었던 관계 설정 또한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존 연구물들 가운데에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해방 이후, 남한에서 생산된 태평양 및 인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주목한 바 있다. 김예림은 제국 일본의 ‘南方’ 진출로 발견되었던 태평양이 해방 이후, 특히 1949년 중공 탄생 이후 친

2) 해방 이후 남한에서 탈식민 민족국가이자 반공주의 국가로서의 국가 정체성 구축 과정에서 호출된 아시아 상상에 관해 참조할 만한 기존 연구물들은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해방~한국전쟁후(1945~1955) 아시아 심상지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20집, 2006; 311-345쪽,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와 1950년대 한국 문학의 자기 표상」,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08이 있다.

3) 김영일, 「대동아공영권의 ‘이념’과 아시아의 정체성」, 백영서 외 지음,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 208쪽.

미·반공 연대의 장으로 강력하게 부상하였음을 논의⁴⁾했으며, 장세진은 해방 이후 남한에서 태평양의 부상이 38선 양단으로 인해 해양 공간이 부각된 결과이자, 미국발 민주주의와 관련 있는 새로운 ‘민족/국민국가’의 기원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고찰하였다.⁵⁾ 인도에 초점을 맞춘 정재석은 해방 이후, 남한이 인도와의 동일화/차이화 전략을 통해 문명화된 민족 혹은 정의를 수호하는 반공 민주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는 점을 살폈다.⁶⁾

이 글에서는 아시아 지역 가운데 특히 동아시아 냉전의 역학에서 중요한 변수였던 중국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냉전 체제가 고착화되기 이전, 중공군/국민당으로 나뉜 ‘두 개의 중국’은 분단 상황에 놓인 한국의 상을 투사할 수 있는 거울이었으며, 1949년 10월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은 반공·자유주의 한국의 국가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타자화의 대상이었다. 중국 공산당의 독자성을 인정했던 분위기나 1949년 6월 미군 철수를 앞두고 민족 통일을 상상하고 한반도의 미래상을 그리는 과정에서 중국을 호출했던 분위기⁷⁾는 1949년 10월 신중국 정부 수립 이후 급속도로 변모된다. 더욱이 ‘태평양 동맹’ 결렬⁸⁾, 소련의 중공 승인, 아시아 여타 지역으로의 중공의 진군(進軍) 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소련의 노선과 명령을 추종하는 세력’으로 비난받았으며⁹⁾, 한국 역시 언제나 공산주의에 노

4) 김예림, 위의 글.

5) 장세진, 「해방기 공간 상상력의 전이와 ‘태평양’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제26집, 2009, 103-149쪽.

6) 정재석, 「타자의 초상과 대한민국의 자화상-해방~한국전쟁기 인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7집, 2009, 369-408쪽.

7) 미군철수를 앞두고 개최된 설문조사에서 나온 ‘남북통일 전선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활발해지겠지요 여의치 못하면 중국과 꼭 같은 방향으로 나리고가겠지요 중국은 또 다시 아세아의 모양 같습니다.’(「미군철퇴와 통일문제」, 『신천지』 제4권 5호, 1949. 5, 58쪽)라는 발언에 드러나듯, 이념적으로 분열된 중국은 한국의 ‘부정적’ 미래의 상이자,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고조시키는 대타향이었다.

8) 당시 이승만은 장개석, 쿠리노와 함께 아시아 군사 동맹이자 친미·반공 연대인 ‘태평양 동맹’을 구상했지만, 미국이 중립국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반대, 동맹은 결렬되었다.(박진희,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역사비평』 제76호, 2006, 90-118쪽 참조)

9) 백영서, 「1949년의 중국: 동시대 한국인의 시각」,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집,

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었다.¹⁰⁾ 그런데 이 시기 남한에서의 아시아 상상에 있어 중국이 다른 지역보다 중요한 것은 1949년 전후로 남한 사회에 등장한 중국인 난민으로 인해 냉전 체제하 아시아 상상이 심상지리적 혹은 담론적 차원을 넘어서, 현실적 차원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들을 대한민국의 범망으로 소환하고 관리해가는 과정은 곧, 냉전 체제하 신흥 자유주의 민족국가로서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후 한국이 중국인 난민을 배제/포섭하며 탈식민 민족국가 및 자유주의 국가로 대내외적 정체성을 구축해나갔던 과정과 이를 소설로 서사화했을 때 발생한 균열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당대 정책 및 사회적 담론을 살피고자 그 당시 생산된 중국 난민 관련 기사를 살폈으며, 소설 텍스트로는 1950년 1월 『태양신문』¹¹⁾에 연재되었던 이광수의 미완의 장편소설 『서울』을 삼았다.¹²⁾

2. 월경하는 이민족, 중국 난민의 등장

1945년 8월 이후, 일본, 중국 및 만주, 동남아시아 등지에 거류했던 조선인은 국경을 넘어 대규모 인구 이동을 통해 한반도로 귀환했다. 이들의 귀환은 과거 식민지시기 경험과는 단절된 채 새로운 조선인으로 거듭나는 과

2000, 75-87쪽.

- 10) 신중국 성립으로 인한 한국 사회의 불안은 이데올로기적 차원만이 아니라, 대만으로 간 장개석의 국민당과 일본이 경제적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아시아 경제권을 일본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경제적 차원의 불안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승만 대통령, 중국 문제에 대하여 UP기자와 문답’, 『한성일보』, 1949. 1. 30.)
- 11) 1949년 2월 25일 창간된 『태양신문』은 사장 노태준, 발행 겸 편집인 강인봉, 편집부국장 최진태, 『국제신문』 폐간 후(1949. 3. 6.) 송지영이 주필로 입사, 편집국장을 겸임했다.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현실』, 1995, 353쪽.)
- 12) 이 글에서는 1950년 1월~1953년 7월까지 『태양신문』이 결호되어 있기에 연재된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이광수전집』(삼중당, 1963)에 수록된 판본을 텍스트로 삼았다.

정 그 자체이기도 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중국 혹은 민주 거류 조선인들은 중국인들의 눈에 약소민족이라기보다는 제국 일본의 이등 국민으로 포착되었고,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곧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들에게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아이덴티티는 “불안과 동요의 근원”이었으며, 귀환 행위는 신생 민족국가의 한 일원으로 편입되거나 자유주의/공산주의 이념을 선택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의 문제이기도 했다.¹³⁾ 그런데 국경을 넘는 자들 모두가 이념적 혹은 민족주의적 차원에서 특정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은 중국 거류 조선인 귀환자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실질적인 생존과 삶의 차원에서 이동을 감행했던 여타 존재 역시 신흥 탈식민 민족국가 혹은 냉전 질서 하 자유주의/공산주의 국가 수립 과정에서 특정 민족주의적·이념적 방향성이 부여된 채 국가 내부로 포섭/배제되는 측면이 강했다. 즉, 국경을 넘는 자들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과정은 탈식민 민족국가이자 자유주의/공산주의 국가로 그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대륙에 남아 있던 국민당 정부 관계자들은 홍콩으로 망명하거나 대만으로 넘어간다.¹⁴⁾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중국 본토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난민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1948년 말, 남한 사회에도 국공 내란을 피해 남하한 중국 난민이 등장했다.¹⁵⁾ 일시 체

13)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 해방기 귀환의 지경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제29집, 2010, 355쪽.

14) 당시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간략히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1925년 영국의 지원을 받은 장개석의 중경 정권은 연안의 중국 공산당을 배척하며 국공 양당은 대립 국면에 들어갔지만,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국공은 항일합작을 시도한다. 이 대처점에는 일본의 지원을 받는 왕조명의 난징 정권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패전 이후 다시 국공 분열 상태로 돌입하고, 1949년 10월 신중국 수립 이후 국민당 정부는 타이완으로 쫓겨난다.(류용성, 「홍콩의 탈식민주의 정치와 문화 냉전」,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1940~1950년대』, 현실문화, 2008, 184쪽.)

15) 해방 이후, 한국에 유입된 중국 난민에 관한 논의는 거의 단편적이다. 한국은 난민협약(1951) 및 난민의정서(1967)에 1992년 가입했지만, 그 수용의 역사는 대개 1975년 4월 베트남 공산화로 자국을 탈출한 이들 가운데 국내로 들어온 월남 난민(보트피플)에 대한 보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49년 전후 중국 난민의 등장은 한국 난민 경험에 있어 기원과도 같은 것으로 언급되지

류를 목적으로 하거나 애초에 목적지를 한국으로 삼고 인천항에 들어온 그들은 대부분 하층계급으로서¹⁶⁾, “입국을 거절한다면 자살이라도 하겠다”¹⁷⁾ 주장하며 피난이 비단 정치적 문제만이 아니라 사활이 걸린 생존의 문제임을 드러냈다. 국제적으로 난민협약 제정(1951) 전이자, 국내적으로 외국인 출입국법이 제정(1949. 11) 전인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 영사에게 이들 난민의 성격 및 정당성 규명과 함께 대만의 국민당 정부로부터 이들의 송환 약속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이는 임시 편법을 제정한다.¹⁸⁾

그러나 1948년 11월 중순경 또 한 차례 400명가량의 난민이 유입하자, 일부에서는 “같은 피를 받은 전제동포에 대한 구제대책”도 없는 마당에 “외국인 불법입국자”를 받아들여 민생을 악화시키고, 한국 경제를 교란시키는 화교 세력까지 증대시킨다는 비난이 일었다.¹⁹⁾ 실제 중국의 전제동포 및 북한 전제민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한국에 유입하고 있었으며, 전 인구의 15%가

만, 정치적 망명자들의 일시적 경유로 한정된 채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1975년 이후 한국의 난민 수용에 대해선 정인섭,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1호, 2009, 197~222쪽 참조

- 16) 일반적으로 난민은 1951년 난민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여타 이유로 그 보호를 원하지 않는 자, 혹은 무국적 자로 상주국 밖에 위치한 자 등을 가리킨다. 중국인 피난민의 경우 중국 본토가 아니라도 국민당이 있는 대만으로 송환될 곳이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법적 지위도 부여되지 않는 난민과는 거리가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 난민 가운데에는 중국 본토를 떠났지만 대만으로의 송환 역시 생존의 위협을 이유로 거부하는 자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이념의 차원에서 국경을 넘었다기보다 전란을 피해 남하하여 당장의 생존이 문제인 자들이거나, 혹은 정치적 이유에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양 쪽 모두 반대하거나 그곳으로 가면 반대파로 몰릴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대만으로의 송환을 거부하고 잔류하는 난민들이 특히 문제시되었으며, 정부 역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리가 시급했기에, 한국 내 중국 난민은 일반적 난민의 층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 17) 『이준 외무처 인천연락사무소장, 중국영사와 중국피난민 입국문제를 협의』, 『서울신문』, 1948. 11. 2.
- 18) 1. 한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자는 입국 당시 한국 대표의 입국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인준을 받을 것 2. 당해 지역에 한국 대표가 없을 시는 제3국 미국의 인준을 받을 것 3. 전란지대의 주민으로 풍란에 의하여 남한에 도착한 자는 중국영사의 알선 하에 임시 상륙을 하되 15일 이내에 한국할 것.
- 19) 『중국 내전에 따른 중국인 불법입국자 격중에 정부 무대책』, 『서울신문』, 1948. 11. 23.

이재민, 불구자, 거지 등으로 이들에 대한 구제 사업이 요망되는 상황²⁰⁾에서 ‘혈벗은’ 이민족 난민의 등장 및 이들에 대한 정부의 수용은 사회적 불만을 증폭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한국과 국민당의 친연성(자유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국제적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국 난민에 대한 보호 의무, 식민지시기 민족 수난의 경험과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며 이러한 비난을 축소시키고자 한다.²¹⁾ 한편에서는 국내 치안 및 민생 확보를 들어 중국 난민을 배제하고자 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국제적 도의를 강조하며 이들을 수용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미국의 부흥원조정책 강화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하더라도, 공산주의를 피해 한국으로 몰려드는 난민의 존재는 미국 정부에 의해 한국이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 보루이자 자유진영 선두로 강조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었다.²²⁾ 난민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입장은 1949년 한국 내 잔류 난민수가 증가하고, 무허가 입국 밀항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얼마간 지속되었다. 재한국 중국상인 단체는 중국 난민들이 공산주의를 피해온 ‘불쌍한 이들’로, 이들의 송환은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온정을 촉구하였다.²³⁾ 한편, 소월 미도에 수용 중이던 중국인 피난민은 귀환 반대 결사대를 조직하며 한국 내 잔류를 주장했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 및 치안 권력 측에서는 이들을 피난민으로 가장해 부를 축적하고자 들어온 화교 세력이나, 한국의 치안을 교란시킬 수 있을 불법 입국자로 바라보았다.²⁴⁾ 하지만 외무부는 여전히 국제적 친선 관계 증시하며 난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용을 지속했다.²⁵⁾

20) 「사회부 조사 결과, 전 인구의 15%가 요구호자」, 『서울신문』, 1948. 12. 12.

21) 정부는 인천에 들어온 난민의 수는 많지 않고, 중국정부(국민당정부) 역시 이들의 송환을 약속했기에 부담이나 국가적 피해는 적다고 밝히면서 “인정상 모르는 체 할 수 없으며, 역사상 관계로 보나 일정시 애국 혁명 지사가 받은 중국의 따뜻한 원호를 생각하더라도 방임할 수 없는 일”(「인천에 온 중국 피난민, 국가적 피해 별로 없다-정부 대변인談」, 『조선일보』, 1948. 11. 26.)이라고 말한다.

22) 「귀국한 호프만 미국 경제협조처장, 한국을 극동의 민주주의 보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 『민국일보』, 1949. 12. 22.

23) 「중국피난민구제 한국정부의 호의만 바랄 뿐, 중화상회 정유분씨 호소」, 『동아일보』, 1949. 6. 18.

24) 「불법 입국 화교들 증가」, 『경향신문』, 1949. 4. 17; 「불법 상륙한 피난민 다수 검거」, 『조선일보』, 1949. 6. 1; 「중국 피난민 등 보트 몰고 입항」, 『조선일보』, 1949. 6. 9.

그러나 1949년 6월 미군 철수 이후, 안보의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중국 난민에 대한 논의는 급속도로 “중공군 밀정”으로 수렴되기 시작한다. 7월 초 피난민으로 가장하고 한국에 입국해 赤化 활동을 벌이던 중공군 밀정이 적발되자, 시경찰국은 중국인 무허가 입국자 난민 전체를 범망으로 포획하여, 스파이로 확인되면 소환하고, 단순 무허가입국자로 판정되면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⁶⁾ 하지만 외무부 측에서는 무허가 입국자들에게 임시 거주증을 발급하여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대해 시경찰국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민생 안정 및 치안 유지를 들어(법령 49호 4조, 기타 구법령에 의거) 이들의 강제 추방을 피력했다.²⁷⁾ 그러다 10월 중국 혁명이 일어나자 한국 내 중국 난민을 둘러싼 두 개의 흐름은 결국 난민 추방으로 귀결된다.

1949년 10월 이승만은 담화를 통해 “법 이외 들어온 외국인은 어느 나라를 물론하고 일일이 조사해서 내보내기도 할 것”임을 선포한다.²⁸⁾ 더불어 “우리나라 이익에 배반하는 행동 또는 경제를 교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 (중략)… 빈한 자, 기타 구호를 요할 자라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외무부 장관은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²⁹⁾다는 ‘외국인 출입국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사실상 한국 내 중국 난민 수용은 중지되었다. 동시기 UN에서는 국가의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피난민 및 무국적인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보호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신규 난민 계획’을 발표한다.³⁰⁾ 인권의 중요성과 난민 보호 문제가 국제적으로 강조되었음에 불구하고, 이승만

25) 「중국 피난민 입항 우려할 것 없다」, 『조선일보』, 1949. 6. 15; 「중국 피난민의 구제 원호위 조직토록 강구중」, 『동아일보』, 1949. 6. 14.

26) 「중공 密偵이 입국? 무허가 입국자를 일제 검거 추방」, 『조선일보』, 1949. 7. 10.

27) 실제 외무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무허가 난민들에게는 임시거주증이 발급되어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28) 이승만은 비록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 및 국제적 도의를 표방하며 중국 난민을 수용했지만, 중국 전재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한국의 친척 관계 및 상업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이 거주권을 요청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며, 더 이상 이들의 수용은 불가능함을 주장한다.(「이승만 대통령, 중국 전재민 문제에 대한 담화를 발표」, 『주보』 제31호, 1949. 10. 24.)

29) 「국무회의, 외국인의 입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을 통과」, 『서울신문』, 1949. 11. 10.

30) 「세계난민보호계획」, 『대중일보』, 1949. 10. 30.

이 난민의 일거 추방을 선택했다는 점은 국가 정체성 구축 과정에 있어 대외적으로 국제적 도의와 보편적 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공산주의자 혹은 이 민족을 타자화하고 배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차원의 국가 운용술이었음을 나타낸다. 이후, 중국 난민에 대한 기사는 대한민국의 치안을 교란시키는 ‘중공군 밀정’이나, 공산당 계열과 합작 하에 의도적으로 한국 경제 교란을 목적으로 밀무역을 해온 ‘화교 무역업자’로 수렴³¹⁾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합법적으로 한국 내 거류하는 중국 난민 역시 잠재적 범법자로 여겨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군정 철수와 신중국 수립이라는 두 개의 중대한 사건이 서로 교차하며 국가 정체성 강화가 요청되었을 때, 결국 중국 난민은 한국에서 그 생사 보호와 관계없이 추방되거나, 아니면 잠재적 범법자로서 한국 사회에 남게 되는 양단의 길 밖에는 주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3. 중공군 스파이, ‘치안’=‘도덕’이란 전략

해방 이후, 이광수의 유일한 신문연재소설인 『서울』은 『나의 고백』(1948)이나 『사랑의 동명왕』(1950)과 같은 이광수의 해방 후 다른 텍스트와는 달리, 1949년 12월~1950년 1월 동시대를 소설의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미군 철수 및 신중국 정부 수립과 관련한 당대 사건 및 일상이 이광수의 ‘민족’에 대한 전망과 식민지시기에 대한 정화술(淨化術)에 의해 재조직되어 있는 『서울』에서 본고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중국 난민이 서사화되는 방식이다. 즉, 한국에서 중국 난민들에 대한 배제가 강화된 시점에서 그들의 존재가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서사화되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³²⁾

31) 「인천에서 활동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간첩활동 내용」, 『서울신문』, 1949. 12. 11;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인천 지역의 중국인 밀수를 적발」, 『동아일보』, 1949. 12. 15; 「김태선 서울시 경찰국장, 중국인 간첩사건과 밀무역에 대한 담화를 발표」, 『동아일보』, 1949. 12. 20; 「신태영 육군총참모장 대리, 무역을 가장한 중국 공산당 계열 공작원을 검거하였다고 발표」, 『조선일보』, 1950. 1. 13.

32) 이 글에서는 1950년 1월~1953년 7월까지 『태양신문』은 결호되어 있기에 연재된

『서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사회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서의 ‘서울’이다.³³⁾ 서울은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치안 유지, 생활필수품 및 문화·예술의 차원까지 모두 미국 영향 아래 잠식되고 압도당한 공간이자, 도덕과 질서가 부재한 공간으로 설정된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우리의 것이라 할 것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외국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데다 공중도덕이 중시되지 않아 골목마다 제멋대로 버려진 쓰레기로 인해 “썩는 냄새가 풍기고 구더기와 파리는 수억 수백으로 끓을 것”(187)으로 묘사되는 서울의 혼란스러운 풍경³⁴⁾은 소설의 주인공들이라고 해도 좋을 해방기 남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청년들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대학생 청년 남녀들은 “옛 도덕은 위신을 잃고 새 도덕은 서지 못한 도덕적 진공 상태인 과도기”에 “전연 무방비 상태로 전장에 나선 병사”와도 같은 모습으로 제시되는데, 이들이 향유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이자 댄스파티는 이를 상징으로 보여준다.

“민족적 명절이 된 것은 아니요, 예수교인과 댄스나 하고 싶은 젊은 사람들이나 향락의 핑계라면 아무 것도 놓치지 아니하려는 신식 부자 계급의 것

원본을 확인할 수 없어, 『이광수전집』(삼중당, 1963)에 수록된 판본을 참조했다.

- 33) 『서울』의 미완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S대학 법학과 재학 중인 박인순은 이음진·이규원 남매와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에 간다. 젊은 대학생 남녀들이 모이는 이 서양식 파티에는 중국 북경과 상해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 유학도 한 중국인 서병달을 비롯해 미군·UN군과 접촉하는 민간 외교 사절단 강연주와 양연경, 육군 소령 김덕상과 해군 대위 이해신 또한 참석한다. 댄스파티로 이어진 자리에서 이음진과 규원은 퇴폐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인순을 데리고 그곳을 빠져 나온다. 하지만 인순은 파티 이후 서병달에게 매료되어 급기야 짝사랑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이규원은 박인순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 한편, 대학생 청년들은 서병달의 집에서 다시 한 번 모이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중국인 호소검과 이음진의 연설은 아시아의 장래를 걱정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공통된 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이후 청년들은 다시 강연주의 집에서 모이게 되고, 이들은 그곳에서 ‘한국적인 것’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감탄한다.
- 34) 서울은 이미 1946년에 이르면서 식량난, 부랑자, 살인, 모리배, 매음굴, 유흥가, 불결한 위생 등이 뒤섞인 공간으로 표상되기 시작하는데, 이는 체국/식민지시기에 기인한 조선 경제의 파탄, 미군정의 연이은 정책 실패, 서구 물질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혼란스러움의 재현이었다. 해방 이후 서울 거리의 풍경이나 대중들의 일상적 문화표상으로 해방공간의 문화사의 정체상을 설명한 연구로는 이봉범, 「해방공간의 문화사」, 『상허학보』 26집, 2009 참조.

에 지나지 못하”는 크리스마스 파티는 미군정기 무역과 협잡으로 신흥 부자가 된 자들의 속물근성과 “소비문화와 향락생활”(102)을 추구하며 육체적 쾌락을 얻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욕망이 고스란히 담긴 장이다. 이 파티는 미국 잡지와 영화를 통해 접한 자유주의적인 연애를 동경한 여대생 수선에 의해 개최된 것으로 미군이 남기고 간 문화이자 당대의 대표적 유행으로 설정된다. 수선의 집에 모인 청년 남녀들은 서양 음식이 차려진 테이블에서 어색한 서양식 매너를 재현하지만, 곧 “국산 크리스마스”를 표방하며 “순국 산품”들로 꾸며진 “조선식” 교자상에 둘러앉아 ‘옛날’과 ‘현재’를 비교하고는 “남의 나라의 원조를 받”기 이전 시대의 민족적 색채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 하지만 이들은 곧, 댄스파티에 몰입하며 다시금 이성 및 육체적 쾌락에 대한 강렬한 열정에 휩싸인다.

『서울』에서 청년들을 물질주의에 경도된 자들로 보는 관점은 해방이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민족의 역사적 순간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이 또 다른 외래적 이념에 의해 한층 더 타락하고 단절되는 기점으로 설정된 것과도 관련이 있다.³⁵⁾ 해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청년들의 바로 윗세대는 역설적으로 물질적·정신적으로 타락해버렸으며, 청년들은 부를 축적하고자 ‘家’를 떠난 부모를 비난하면서도 미국식 문화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갖고 허영에 빠져 있으며, 부모 세대에 대한 비판이 공산주의로의 정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세계에 대해 무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대척점에 있는 이규원, 이음전은 민족정신을 삶의 우선 가치로 삼고 ‘미국식 민주주의’와 ‘소련식 민주주의’에 대해 모두 비판적 입

35) 이 소설에서 미국 문화에 대한 적대감은 곧, 해방을 민족 오염의 시원으로 여기는 역설로 이어진다. 물질주의에 경도된 청년들은 기실 해방 이후, ‘무역’과 ‘협잡’에 빠져 타락해버린 부모 세대의 결과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부모 세대는 식민지시기에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른 채 기독교도이자 교육자, 혹은 지사(志士)로서 성실하게 지냈지만, 해방이 되자 곧 미군정 아래 물건을 빼돌려 부를 축적하거나, 홍콩과 마카오 등지에서 무역으로 부를 축적하며, 불륜과 도박을 일삼고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에서 돈으로 당선되고자 하는 등 타락한 속물로 변해버린다. 해방은 식민지시기 (비록 제국 일본의 ‘국민’의 위치였지만) 성실하게 살았던 자들이 “세상이 망하고 흥하는 게 내게 아랑곳이오? 내 세상인가 뭐, 나만 좋으면 고만이지”(150)라는 말과 같이 ‘민족’을 버리게 되는, 반민족의 역설적인 시원이 되는 셈이다.

장을 갖는 이한중의 지식들이다. 파티에 참석한 이음전과 이규원은 “도덕의 힘과 본능의 힘이 접전”(131)하는 상황에서 후자의 승리를 감지하고, 그곳으로부터 박인순을 데리고 나온다. 아름다운 외모와 세련된 취향을 지닌 ‘여성 법학도’이자, 외면만을 중시하고 허영에 찬 인물로 묘사되는 박인순은 이음전과 이규원에 의해 파티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티장에서 만난 또 다른 인물 서병달에게 매료된 채 이한중 일가로부터 서서히 멀어져 간다. 박인순을 이음전과 이규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인물, 서병달은 대단히 남성다운 외모와 서구적 취향 및 매너³⁶⁾, 막대한 재산 및 폭넓은 인맥으로 남한 사회에서 호감 받는 인물이다. 육군 정보 장교는 남한 사회에 중국 공산군이 상해를 포위하였을 때 빠져나와 인천에 도착한 정치적 난민으로 알려진 서병달을 한때 의심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의 인품에 매료되어 친구가 되기까지 한다. 이 시기 난민과 화교를 막론하고 한국에 거류하는 중국인 대부분이 “노동자가 아니면 상인”(153)으로, “우리나라 법을 깨뜨리고 돈을 뿌려서 권리를 부패케 하면서 사치품을 밀수입하여 우리의 피를 빨아가는 무리”(155)로 여겨지며 부정적인 존재들로 배제되고 타자화되는 상황에서 서병달과 같이 남한 사회의 폭넓은 신뢰를 받는 중국인 난민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그는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한층 더 남한 사회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되어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서병달은 “민족주의자, 애국자의 가면을 쓰고, 점잖은 유생이나 크리스찬이나 미국식 교육을 받은 신사”(182)라는 가면을 쓴 채, 동란을 피해 자유주의 국가 남한으로 들어온 중국 난민으로 위장한 중공군 스파이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개인주의의 극단에 치달은 자-박인순은 서구적 취향과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남한 사회에 등장한 중국 난민

36) 서병달에 대한 첫 묘사는 “끔찍이 남성적인 굵고 힘찬 소리가 먼저 들어오고 뒤이어 만식의 뒤를 따라 키가 후리후리하고, 서울서 지은 것 같지 아니한 더블 브레스트의 서 줄 있는 양복이 더욱 그를 후리후리하게 보이게 하였다. 빗질 잘한 오울백 머리와 가슴, 호주머니에 삼각형의 귀를 늘인 흰 손수건이며, 여러 사람을 향하여서 하는 목례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악수하며 인사하는 것 등이 모두 서양적이고, 턱 자리가 잡혔다.”(116)와 같이 서구적 취향과 매너에 관한 것이다.

서병달에게 가장 먼저 매혹된다. 그러나 박인순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 ‘과학’과 ‘문화’에 열중하는 이규원에 대한 기존의 호감을 폐지한 채 서병달에게 매료된다는 설정이나, 이에 대한 서술자의 “도덕이란 가냘픈 처녀는 서양 사상에 반쯤 맞아 죽고 공산주의의 동물 본능 해방으로 아주 죽게 되었다.”(131)라는 언급처럼, 중국인 스파이 서병달은 단지 자유주의/공산주의 대립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하고 교란시키는 자로 나타나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 난민으로 위장한 중공군 스파이에 대한 경계가 곧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강화로 이어지고, 동시에 민족적 아이덴티티 강화가 곧 국가 치안 유지로 순환되는 『서울』에서 서병달에 대한 박인순의 내밀한 감정은 ‘친자매’와도 같던 이음전에게는 은폐되고 감춰진다. 박인순은 서병달에게 사랑을 느낀 뒤, 새롭게 발견한 자신의 내면과 욕망을 이음전에게 비밀로 하는데, 박인순이 중공군 스파이와 가까워지는 과정은 곧, 자신의 비밀스러운 내면과 욕망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내면이나 비밀이 없는 이음전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구도에서라면 중공군 스파이 서병달을 향한 박인순의 내면과 욕망은 마땅히 ‘국민-뉘’의 차원으로 관리되어야만 하는 것이 된다.

식민지 후반기, 총력전 체제에서의 스파이 담론이 보이지 않는 적을 통해 개인을 국민으로 교정시키고, 개개인의 욕망을 국가 단위에서 통제하고 관리했던 지배 테크놀로지였다면, 이 테크놀로지는 해방 이후 반공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 있어서도 활용되었다. 다만, 제국 일본의 스파이 담론이 식민지 조선에서 異민족(조선인)의 ‘국민-뉘’을 생산했다면, 해방 이후 탈식민 민족국가 구축 과정에서 스파이 담론은 ‘국민’=‘(남한)민족’을 생산해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치안과 민족적 정체성을 교란시키는 적, 중국 난민으로 위장한 중공군 스파이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 분단과 더불어 신중국 탄생으로 냉전 질서가 한국 사회에 보다 육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난민은 남한 사회에서 법적 보장을 받지 못한 채 거리를 배회하는 헐벗은 존재 아니면 “철창 속에 들어갈”(182) 범법자 스파이로서만 존재할 수 있었을 때, 『서울』에서 서병달은 단지 외래적 이념 간 문제 즉,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공산주의 자로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민족’의 구도에서 ‘민족적 정체

성'을 훼손하여 국가 내부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존재로 서사화된 것이다.

4. 환대받는 난민, 호출된 한국/아시아

그러나 중공군 스파이의 임무를 갖고 서울에 들어온 자는 서병달만이 아니었다. 서병달의 동지이자 콜론타이식 ‘붉은 연애’의 대상이기도 한 중국인 여성 호소검 또한 있었다. 수선의 집에서 개최된 크리스마스 파티 이후, 남한의 대학생 청년들은 서병달의 집에서 다시금 모이게 되고, 중공의 난을 피해 서울로 피난 왔다는 호소검을 만나게 된다. 이 만남에서 남한 청년들은 호소검에게 연민과 동정을 보내는데, 이는 그가 고향을 잃고 타국으로 떠난 피난민인 동시에, 고대부터 식민지시기까지 한국과 역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웠던 중국인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강조된다.

우리 민족의 기억에 있는 중국 사람은 문화가 높고 인정이 많은 백성이라는 것이었다. …(중략)… 그들의 성인인 공자와 노자는 우리에게도 성인이요, 그들의 시인인 도 연명과 이 백은 우리의 시인도 되었다. 더구나 우리 민족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이후 사십년 중국 사람은 세계의 누구보다도 우리의 친구였다. 우리 지식들은 그들 속에 가서 의접하였고,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가장 동정한 것도 그들이었던 것이다. …(중략)… 사실상 우리 학생의 중국에 대한 지식은 빈약하였다. 일정 시대의 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에게 중국인에 대하여는 경의를 발할 지식보다는 멸시할 지식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중국인은 돈만 알고 애국심이 없고, 군인이 우산을 받고 전쟁을 한대든가 달아나기 잘하고, 지저분하기 파리와 같고, 이러한 재료만 일본인 교원에게서 들었고, 일본인의 책에서 읽은 것이었다.(154)

인용문에서처럼 『서울』에서 중국과 한국은 과거 고대문화사적 공동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었으며, 식민지시기에는 제국 일본에 대해 결함했던 우방(友邦)이었음이 강조된다. 식민지 후반기 조선에서 ‘支那’에 투영되었던 부정적 인식은 소거되거나 일본의 책임으로 떠맡겨진 채, 과거 ‘지나인’/‘조선인’의 기억은 이제 새롭게 배치된 ‘중국인’/‘한국인’이자 ‘난민’/‘국민’의 층위에서 재구성된다. 남한 청년들은 “난을 피해 이 나라에 의탁하러 온 아

름다운 손님 호소감”을 같은 동양인인 ‘중국인’이자, 냉전 체제하 ‘난민’으로 받아들이며 환대한다. 중국 난민을 환대하는 것은 곧, 냉전이라는 국제 질서 아래 동아시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인 동시에, 신흥 자유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즉, 『서울』에서 남한 내 거류하는 중국 난민은 한편으로는 국내 치안 및 민생 확보 차원에서 대한민국 법망으로 소환되는 (잠재적) 범죄자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도의를 강조하며 역사적 과거를 기억하는 한국인들에게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서사화되는데, 이 과정에는 신흥 자유주의 민족국가 한국의 대외/내적 정체성 구축 과정이 담겨 있다. 대내적으로는 난민의 부정적 상을 제시하며 국내 치안을 강화시키고 민족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는 보편 가치(인권)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자유주의 국가라는 위상을 인준 받고자 했던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호소감은 남한 청년들을 탈식민 아시아 건설 주체로 호출하며, 냉전 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중국과 한국의 ‘아시아’ 연대를 연설한다. 서병달이 남한 청년들을 서구적 외모와 취향, 막대한 부로 유혹했다면 호소감은 중국인이라는 민족적 아이덴티티와 아시아 호출을 통해 청년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아시아는 명확한 실체라기보다는 미래의 탈식민 국가 건설의 주체들로 구성된 집합체이자, 냉전 질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라는 냉전 질서로 인해 분쟁과 분열 상태에 빠진 약소 지역들을 호출하여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공간이었다.³⁷⁾ 즉, 정치적·이념적으로 얼마든지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중국인 대표로 연설한 호소감이나 한국인 대표로 연설한 이음전의 입장은 냉전 질서 아래 각 지역의 반복되는 분쟁과 분열,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는

37) 『서울』에서 ‘아시아’가 냉전 질서 하 새롭게 구성되고 상상되는 공간이라는 점은 호소감의 “여러분의 나라 대한은 삼팔선으로 허리가 끊겨 있습니다. 우리 나라 중국은 사십년 동안이나 내란이 계속되어있습니다. 이웃 나라 월남은 지금 호志明 정권과 바오다이 정권이 둘로 갈려서 동쪽끼리 피흘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는 어떠하며 인도는 어떠하며 버마는 어떠하며 인도네시아는 어떠하며 아시아 저 서쪽 끝 팔레스타인은 어떠합니까. 모두가 둘러 갈려서 싸우고 있고 죽이고 있습니다. 동지들이 무엇 때문에? 이 누구 때문에?”(156)라는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해야 할 것은 ‘아시아 지역’임을 강조한다는 데 있어서는 비슷하지만, 동시에 그 불안감을 운용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³⁸⁾ 이를테면 ‘공산주의자’ 호소점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이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를 가리지 않고 연대하여 투쟁해야 한다고 밝힌 데 반해, 이음전은 투쟁이 아닌 “모스크바도 아니요, 서울의 깃발 밑에 일어”(160)난 “사랑”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한국적인 것’·‘홍익인간’, ‘광명 이세’, ‘독경 산보’, ‘인의’-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된다.³⁹⁾

주지하다시피 해방 이후, 근대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안호상과 이승만은 식민지시기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 (재)구축된 담론이자 식민지 후반기 전쟁 동원의 수사학이었던 ‘화랑’이나, 일본의 ‘팔굉일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홍익인간’을 소환해⁴⁰⁾ ‘일민주의(一民主義)’를 고안한 바 있다. 식민지시기부터 신라나 삼고 시대에 대해 ‘민족-됨’, ‘(일본)국민-됨’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광수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시기를 소거한 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고 순수하다고 여겨지는 한국 민족 정체성의 정수를 고안하고, 이를 신흥 국민국가의 정체성 구축에 활용했다. 그러나 “세계는 일찍 동방에 배웠거니와, 앞으로 다시 동방에서 사랑의 길을 배”워야 한다는 이음전의 언급처럼 국가 멘털리티로 고안된 ‘한국적인

38) 정재석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남한 사회에 제시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논의들을 분석하며 정부 수립 이후 3차 대전론이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국민들에게 현시하는 담론적 도구였음을 밝힌 바 있다.(정재석, 『해방과 한국전쟁, 3차 대전론의 단층들』, 『상허학보』 제27집, 2009, 191-228쪽 참고)

39) 이광수는 이 ‘한국적인 것’이 결국 인도의 불교, 중국의 유교, 이스라엘의 기독교와 필적한 만한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것이자,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분쟁으로 뒤덮인 현재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지도적인 정신력임을 강조한다.

40) 1946년 미군정기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대를 강조하며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을 주창했던 백남운의 경우, 당시 ‘홍익인간’이 미군정기 교육이념으로 채택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난날 일본인들이 즐겨 쓰던 ‘팔굉일우’ 사상과 비슷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승만 계열과 김구 계열을 막론하고 당시 남한에서는 ‘홍익인간’ 이념을 만인을 이롭게 하는 인도주의적 사상으로 보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다.(연정은, 「안호상의 일민주의와 정치·교육활동」, 『역사연구』 제12호, 2003, 27~28쪽.)

것을 ‘사랑’으로 언급하며 아시아 다른 지역에도 통용될 수 있을 우월한 보편성이 내재된 것으로 강조하는 방식은 그러나 실상 과거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했던 제국 일본의 대동아공영권론의 재맥락화이기도 하다.⁴¹⁾ 이런 지점은 ‘민족’에 대한 열망 및 그를 통한 자기 확장에의 욕망이 곧, 스스로를 보편으로 자처하며 새로운 위계화를 창출해내는 모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민족국가의 자기 확장 메커니즘을 드러낸다.

5. 결론 : ‘민족-국가’의 자기완결성, 혹은 서사적 균열

이광수가 식민지시기부터 민족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를 비판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친일파 청산 문제와 관련해 공산주의에 적대적이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당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그 전망을 제시했던 『서울』은 역설적으로 남한 사회에 공산주의적 내용이 담긴 소설로 읽히며 연재 중단된다.⁴²⁾ 공보처는 “소설 가운데 등장하는 대학생들이

41) “사랑의 깃발 아래 아시아 십억 민족이 본래 면목으로 돌아와야 한다”(160)는 이 음전의 발언은 식민지 후반기, ‘내선일체’를 ‘사랑’으로 기획했던 이광수의 『진정 마음이 만나서야말로』(『綠旗』, 1940. 3~7.)와 같은 소설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대동아공영권 구축의 기본 원리로서의 ‘사랑’은 해방 이후 새로운 동아시아 구상의 기본이념인 ‘사랑’으로 변주되어 국민국가 한국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기제로 사용된 것이다.

42) 연재 중단에 대해서는 『서울』이 사회주의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중단되었다는 논의도 있다. (“이 작품의 연재 중에 서병달 편의 十一, 十二, 十三의 삼회분은 삭제당한 바도 있으며, 춘원 선생은 좌순한 사람들로부터 지나치게 공산당을 때린다는 말도 여러 번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이 작용하여 서울이 중단될 때, 선생은 신문사의 간부 S씨에게, 『당신도 내 소설을 끊는 그 생각(思想) 때문에 한번은 봉변을 당하리다!』 이 말을 던지고 묵묵히 돌아 서서 서러하는 것이다.”(이형기, 『해설』, 『이광수 전집』 9, 삼중당, 437쪽.)) 하지만, 적어도 1949년 이전까지는 소련이 미국과의 비교, 경쟁 속에서 때로는 우호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논의되며 표면에 부상했기도 하지만, 1949년 10월 신중국 정부 수립 이후 긍정적 소련 논의는 남한 담론 장에서 자취를 감추었으며(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와 1950년대 한국 문학의 자기 표상』, 앞의 글, 48쪽), 남한 내 좌파 세력들의 입지는 급격히 약화되었다. 더욱이 우익계 『태양신문』(윤덕

공산청년동맹의 지하 조직에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장면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묘사되기 시작”하여 당시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태양신문』 측에 연재 중단을 요청한다.⁴³⁾ 이런 아 이러니는 당시 한국이 어떻게 국가 경계를 확정하고 ‘민족국가’로서 자리 매김하고자 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공산주의는 민족을 부정하고 개인을 기계로 전락시키는 반인간적 사상으로 제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 서병달은 예외적 인물로 그려지며, 이는 그가 중국계 한국인이라는 위치에 기인한다. 서병달은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로서, 중국에서 조선 독립운동 활동을 펼쳤던 민족운동 지사의 혈육이기도 하다. 혁명에 대한 청년의 일반적인 열정을 갖고 있던 그가 중공군에 가담한 것은 모택동의 공산주의에 대한 호감이라기보다는 국민당의 부패한 모습에 반감을 품었기 때문이었지만,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중국 내에서 중국인들에게 민족적 차별을 받지 않고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갈 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공산당 지도부에 걸으려는 자신의 조국이 소련이라고 밝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자신의 조국임을 의식하며, 한국 사회에 스파이로 침투하라는 명령을 받은 순간에도 “아침별 물결 센 바다에서 산 높은 조국의 땅”(178)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소속된 영토 혹은 이념이 다른, 중국계 혼혈아이자 중공군 스파이 서병달에게 “애국심과 민족 의식”이 “본능이라 할 만하게 깊이 뿌리가 박혀” 있다는 설정은 외래적 이념에 압도당하지 않는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강조인 동시에, 한국전쟁을 거치며 피로 맺은 자유주의 혈맹(血盟)이 구축되기 이전, 공산주의자들 역시 일정 부분 ‘민족’의 범주로 포섭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제시이기도 하다.⁴⁴⁾

용, 앞의 글, 같은 쪽에 연재되던 소설이 “민족적이고 반공적이라는 이유로”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중단되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당시 청년들에게 공산주의 사상을 선전하고 선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공보처의 요청으로 중단되었다는 김팔봉의 진술을 참조하였다.

43) 홍정선 편, 『김팔봉 문학전집』 5, 문학과지성사, 1989, 236쪽.

44) 『서울』에서는 비단 서병달만이 아니라, 남한 청년들 가운데에도 일정 부분 공산주의에 경도된 자들이 있다. 이를테면 미군정기 무역업으로 부를 축적하고 속물이 된 아버지를 비판하던 만식은 그로 인해 공산주의에 경도되었으며, 미

해방 이후, 민족적인 것은 좌우 대립의 기표라기보다는 식민지시기에 대한 청산, 일본에 대한 타자화라는 의미에 더 근접했다. 하지만 1948년 단독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의 안정화 정책에서 피와 가족은 사상과 이념에 의해 상대화되고 하위화되었으며, 피의 민족 구성력은 점차 의심되었다.⁴⁵⁾ 안호상과 이승만 역시 단일민족을 강조하며 일민주의(一民主義)를 말했으나, 그때 단일민족 개념은 ‘지금 현재’로부터 출발할 수 없는, 고대 단군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⁴⁶⁾ 이런 상황에서 이념으로부터 훼손시킬 수 없을 민족성을 강조하며, 이념의 경계를 넘은 혈연적 동질성을 상정하는 것은 38선 넘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같은 민족으로 상상케 하며 국내 치안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탈식민 민족국가 및 자유주의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중국 난민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치안 유지를 국외적으로는 국제적 위상 정립을 시도하며, 아시아 및 세계의 중심에 한국을 부상시키고자 했던 이광수의 기획은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 공산주의자라는 모호한 인물 설정으로 인해 미완에 그치고 만 셈이다. 그리고 이런 측면은 반대로 이념적 민족 생산을 통해 공산주의를 배제하며 민족국가의 자기 완결성을 추구했던 당대 흐름을 드러내준다.

그런데 이념적 차원과는 또 다른 층위에서 『서울』의 연재 중단은 텍스트에 쓰인 것 이상의 혹은 다른 층위의 많은 것들을 말해준다. 중국 난민을 놓고 이승만 정권이 국제적 위상 정립과 국내적 치안 유지 즉, 국제적 위상 정립을 위해 중국 난민을 그대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국내적 치안 유지를 위해 추방하느냐 하는 기로에서 신중국 수립으로 인해 결국 후자를 선택했던 반면에, 이광수는 『서울』에서 전자를 선택한 셈이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과거 제국의 권역이었던 아시아를 새로 쓰고, 그 중심에 한국을 위

국적 물질문화를 동경하며 이성 간 연애를 상상하는 수선은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의 붉은 연애에 깊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재생(再生)할 수 없는 부정적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이한중 일가에 계 계도되어 ‘민족’의 범주로 포섭될 수 있을 자들이다.

45) 임종명, 『탈식민지 시기(1945~1950) 남한의 국토 민족주의와 그 내재적 모순』, 『역사학보』 제193집, 2006, 85쪽.

46) 장세진, 앞의 글, 73~74쪽.

치시키고자 한 기획임과 동시에 보편 서구 세계로부터 한국 민족의 우월성을 인준 받고자 한 열망의 결과이기도 했다.⁴⁷⁾ 그런데 서병달이 ‘소속 없음’의 상태(난민)와 범의 그물망(스파이)으로부터 빠져나와 ‘민족’=‘국민’의 범주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일어난 『서울』의 연재 중단은 이민족의 ‘국민-됨’에 대한 남한 사회의 불쾌감 혹은 불안감의 반증이기도 하다. ‘민족’으로 포섭 가능한 중국 난민이란 존재는 특정 하나의 민족만이 국민의 성원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민족국가 시스템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할 존재 혹은, 국민/비국민의 경계에 있는 존재였다. 그러므로 이민족이나 난민인 서병달의 ‘민족-됨’ 더 나아가 ‘국민-됨’은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민국가 구축 과정에 있어 위험한 것이었다. 『서울』은 한편으로는 ‘우월한 민족성’에 기초한 민족주의를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난민에게 ‘소속할 권리’를 부여한 혼종적인 텍스트이다.⁴⁸⁾ 요컨대 『서울』은 이광수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연재 중단을 통해 민족국가 단위의 세계에서 난민의 존재는 ‘이민족’이자 ‘비국민’이라는 층위에서만 다른 국가 내부로 들어갈 수 있으며, 국가는 이들을 통제하고 배제하는 것을 통해 그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47) 당시 단독정부를 구성한 이승만 및 안호상 계열만이 아니라, 남북통일을 주창한 김구 노선 및 중도파에게까지 ‘홍익인간’과 ‘화랑정신’은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정수로서 공유되었던 이념이었다. 그런데 ‘홍익인간’ 이념의 사용 방식에 있어서 안호상·이승만 계열이 ‘국민 창출’이라는 국내적 상황에 보다 집중했다면, 김구는 ‘민족주체론’을 펼치며 한국 민족의 보편성 및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강조했다. 이는 차이를 보였다. (정경환,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7집, 2008, 115쪽) 흥미롭게도 당시 김구의 국가론과 이광수의 수필집 『돌베개』 및 『서울』은 한국의 민족 정체성의 세계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데에서 일정한 유사성을 갖는데, 특히 「나의 소원」의 몇몇 대목들은 수필 「내나라」(1948) 및 『서울』에서 유사하게 쓰이고 있다. 당시 국사원관 『백범 일지』(1947)의 국문 윤필을 이광수가 맡았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하는데, 해방 이후 이광수가 김구의 국가론에서 받은 영향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48) 난민과 소수민족들, 무국적자들이나 추방된 자들은 민족국가의 행위가 만들어낸 특수 범주의 사람들로서, 이들은 한나 아렌트가 말한, ‘일정한 공동체에 속할 수 있을 권리’가 박탈당한 존재들이다. 이에 대해선 세일라 벤하비브, 이상훈 옮김, 『타자의 권리』, 철학과학실사, 2008; 주디스 버틀러·기야트리 스피박, 주해연 옮김,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한나 아렌트, 앞의 책 참조

1949년이자 ‘난민의 세기’에 대한 기록 그 자체가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경향신문』, 『대중일보』, 『동이일보』, 『민국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주보』, 『한성일보』, 『신천지』
 이광수, 『서울』, 『이광수 전집』 9, 삼중당, 1963.
 이광수, 『돌베개』, 광영사, 1953.

2. 논문과 단행본

-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해방~한국전쟁후(1945~1955) 아시아 심장지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20집, 2007, 311-345쪽.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보』 제29집, 2010, 333-376쪽.
 박진희, 「이승만의 대일인식과 태평양동맹 구상」, 『역사비평』 제76호, 2006, 90-118쪽.
 백영서, 「1949년의 중국: 동시대 한국인의 시각」, 『중국근현대사연구』 제9집, 2000, 75-87쪽.
 손미란, 「김남천의 『1945년 8. 15』 연구-『사랑의 수족관』과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남북 문화예술연구』 제4호, 2009, 181~211쪽
 연정은, 「안호상의 일민주의와 정치·교육활동」, 『역사연구』 제12호, 2003, 7-38쪽.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현실』 제16호, 1995, 341-379쪽.
 임종명, 「脫식민지 시기(1945~1950) 남한의 국토 민족주의와 그 내재적 모순」, 『역사학보』 제193집, 2007, 77-121쪽.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와 1950년대 한국 문학의 자기 표상」,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장세진, 「해방기 공간 상상력의 전이와 ‘태평양’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제26집, 2009, 103-149쪽.
 정경환,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47집, 2008, 101-125쪽.
 정재석, 「타자의 초상과 신생 대한민국의 자화상-해방~한국전쟁기 인도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7집, 2009, 369-408쪽.
 정재석, 「해방과 한국전쟁, 3차 대전론의 단층들」, 『상허학보』 제27집, 2009, 191-228쪽.
 정인섭,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1호, 2009, 197-222쪽.
 백영서 외 지음, 『동아시아의 지역질서-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2005.

-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1』, 현실문화, 2008.
- 홍정선 편, 『김팔봉 문학전집』 5, 문학과지성사, 1989.
-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옮김, 『아시아/일본 사이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그린비, 2010.
- 세일라 벤하비브, 이상훈 옮김, 『타자의 권리』, 철학과현실사, 2008.
- 주디스 버틀러·가야트리 스피박, 주해연 옮김,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산책자, 2008.
-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06.

Abstract

Century of refugees, imagined Asia

Kim, Hye-In

This paper examined the mechanism of exclusion/absorption of the nation-state which are inherent in the Asian imagin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decolonized nation state and the free nation by investigating articles and narratives related to Chinese the refugees produced in Korea before and after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 In South Korea in 1948 appear the Chinese refugees who moved south escaping from the war of China. South Korea who accepted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ternational morality, however deported all of the refugees who entered the country illegally or came to consider the refugees left in South Korea as (potential) criminals of spies · smugglers a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in October, 1949. In these situations Lee Gwang Soo's *Seoul* is problematic, which presented the Chinese refugees with the background of Seoul at the same period of time in January, 1950. *Seoul* presented the Chinese refugees, and domestically, stressed public order and security setting up them as spies, and externally, tried to found the status of a liberalistic nation Korea emphasizing an affinity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he project to raise the Korea's national identity to the center of not only Asia but also the world moved forward to stress the eternity of the national identity of Koreans setting up Chinese refugees and spies of Chinese Reds as 'the Chinese Koreans'. As a result, eventually *Seoul* was read in terms of communist aspects at that time and it was stopped to be published serially. However, on the contrary, this paradoxically indicates that the decolonized nation-state and the free nation were constructed through excluding other nation's refugees and communists from the category of 'people'='nation.' (Key words : Asia, Korea, Nation-State, China, refugee, spy, Lee Gwang Soo, 『Seoul』)

위 논문은 2010년 10월 23일 제35차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자유주제논문으로 발표 되었으며, 2010년 10월 30일 학술지에 정식 투고되어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 음.